

홍상수 '도망친 여자'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감독상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3월호

배우 김민희와 7번째 호흡...서영화·송선미·김새벽·권해효 등 출연 세계영화제 수상 네번째...“나를 위해 일해준 모든 사람들에 감사”

홍상수 감독이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음하는 한국영화계에 낭보를 전했다.

홍 감독은 24번째 장편 '도망친 여자'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폐막한 올해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주요 부문 4관왕을 휩쓴 데 이어 쾌거다.

'도망친 여자'는 결혼 후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던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두 번의 약속된 만남과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과거 세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김희'를 따라가는 영화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7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서영화와 송선미, 김새벽, 권해효 등

이 출연했다.

홍 감독은 '밤과 낮' (2008),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2013), '밤의 해변에서 혼자' (2017)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주연 김민희에게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안겼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연인 김민희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홍 감독은 시상식 무대에 올라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나를 위해 일해준 사람들,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허락한다면, 여배우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배우 김민희, 서영화가 일어나 함께 박수를 받았다.

홍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자신의 작품과 관련해 수상 영예를 안기는 이번



홍상수 감독.

이 네 번째다. 1998년 '강원도의 힘'이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특별언급상, 2010년에는 '하하하'가 이 부문 대상을 탔다. 베를린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은곰상 감독상 수상은 '사마리아' 김기덕 감독 이후 두 번째이자 16년 만이다.

수상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은 이 영화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에 대해 "나는 큰 그림을 그리거나 큰 의도를 갖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면서 "작은 세계에서 조그맣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는 윤성현 감독의 '사냥의 시간'이 스페셜 갈라 부문에, 김아영 감독의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이 포럼 익스펜디드 부문에 초청됐다. 최고상인 황금곰상은 이란 출신 모하마드 라슬로프 감독의 '데어 이즈 노 이블'(There Is No Evil)이 받았다. 라슬로프 감독은 현재 이란에서 출국이 금지돼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예남



'문화광주, 컬렉션을 브랜딩하라' '역사 문화도시' 나주로의 여행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남' 3월호가 나왔다. 이번호의 특징은 '문화광주, 컬렉션을 브랜딩하라'다. 빼어난 컬렉션과 화려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미술관(박물관)은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는 현장이다.

또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미술관의 컬렉션은 도시를 상징하는 고부가 문화자산이기도 하다. 차별화된 컬렉션으로 시민들의 자긍심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국내 미술관의 컬렉션을 조명한다.

예남 초대석은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을 만나고 왔다. 최태지 감독은 37세에 국립발레단 수장에 올라 12년간 단계를 이끈 명실상부 '대한민국 발레계의 대명사'다. 2017년부터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을 맡아 무대에 올린 '백조의 호수'와 '해설이 있는 발레' 등은 호평을 받았다. 최근 연임돼 2년간 발레단을 더 이끌고 있는 최 감독의 발레인생과 미래 포부를 들어본다.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의료계는 물론 문화계까지 흔들고 있다. 줄이는 공연 취소와 미술관·박물관들의 휴관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며 '미리보는 2020 문화계 빅 이벤트'를 소개한다.

2020년 지역 문화계는 어떤 빅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광주시립 예술단을 포함한 문화단체들은 5·18을 주제로 한 공연과 전시,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공연계에서는 헬리스트 미사마이스키, 피아니스트 백건우 등 공연 성찬이 차려진다.

새봄을 맞아 떠나는 남도 기행 '짜짜짜

목 남도 한 바퀴'는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나주로 향한다. 나주는 예로부터 남도 행정과 문화의 심장부였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주 읍성권을 비롯해 영산포 근대문화회관, 반남고분군 등 오랜 역사를 품고 있다. 천연염색과 흙 등 독특한 문화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나주로 봄맞이 시간여행을 떠난다.

겨우내 우중충했던 집안에 화사한 봄을 선물할 시간이다. 새봄 기쁨 '집안에 봄을 선물하세요'는 산뜻한 봄꽃과 공기정화에 좋은 초목식물을 소개한다. 꽃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주리안과 카랑코에, 안시리움, '팍손'도 키우기 쉽다는 스파트필름, 스킨디비스까지 화초전문가가 추천하는 다양한 봄꽃 식물을 알려준다.

KIA타이거즈가 구단 사상 첫 외국인 감독 맷 윌리엄스 감독을 앞세워 '왕조 재건'을 다짐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KIA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현장을 찾아가 김여울 기자가 캠프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위라벨 시대, 문화관광이 뜬다'는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 문화(文)이자 전 세계에서 200여 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미술의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안내한다. 문화기자가 직접 떠나는 '문화이슈'는 문화관을 찾아서'는 이동주·김남주·고정희·박성룡 등 해남 땅이 낳은 작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해남 땅끝순례문화관으로 향한다.

이외에 절제된 감성의 공공건축물인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 기록관을 찾아가 '클릭, 문화현장',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준비한 '행동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해가자' 첫번째 이야기 '가족의 시작'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실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한국영화 101년...세계 3대 영화제서 활약

1961년 '마부' 시작... '기생충' 칸느 황금종려상 수상

지난달 29일 홍상수 감독이 '도망친 여자'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3대 국제영화제(칸·베를린·베네치아)에서 한국 영화 수상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01년을 맞은 한국 영화는 60년 가까이 국제영화제에 꾸준히 노크했다. 1961년 김대진 감독이 '마부'로 베를린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탄 것이 시작이다.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장선우 감독이 1994년 '화엄경'으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2004년에는 김기덕 감독이 '사마리아'로 감독상을 받았다.

2005년에는 임권택 감독이 해마다 중요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명예황금곰상 영예를 안았다. 2007년에는 박찬욱 감독이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2011년에는 동생 박찬경과 함

계 만든 단편 '파란만장'으로 단편 경쟁 부문 황금곰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홍상수 감독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출연한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품어 안았다. '씨받이' (1987) 강수연(베네치아영화제), '밀양' (2007)의 전도연(칸영화제) 이후 세 번째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꼽히는 칸영화제에서도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2004년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가 심사위원 대상, 2007년 '밀양' (이창동 감독)이 여우주연상 (전도연), 2009년 '박쥐' (박찬욱 감독)가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이창동 감독의 '시'는 2010년 본상인 경쟁 부문에서 각본상을, 김기덕 감독은 '아리랑'으로 2011년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베네치아영화제도 한국 영화에 큰 의미가 있다. 2012년 '피에타'의 김기덕 감독은 황금사자상(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전지전능한 남자'는 공식 부문의 상을 타는 데는 실패했지만 젊은 사자상, 베스트 이노베이션상, 미래영화상의 3개 비공식 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5·18 40주년...포스터로 먼저 만나는 영화 '낙화잔향'

'광주브랜드 극영화 제작' 선정...5월 광주·미국서 개봉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화 '낙화잔향(落花殘香)'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낙화잔향'은 광주시가 지원한 '2019 광주브랜드 극영화 제작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박기복 감독의 '임을 위한 행진곡' (2018)에 이어 광주항쟁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영화다. 영화 포스터는 남녀 주인공 얼굴의 실루엣을 대칭으로 배치한 뒤, 다양한 철망 구조에 조연, 단역, 보조 출연 배우들의 얼굴을 담았다.

박 감독은 영화 포스터에 대해 "주연 중심의 기존 영화 포스터의 형식과 규칙을

깨끗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광주의 평범한 일반 시민이 영화의 주인공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지난해 8-9월 용전마을, 원호사, 운암동 허운정 가정집, 영산강 습지를 비롯해 해남 바닷가, 화산 무등산 휴양림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현재 후반 작업에 들어가 있다. 러닝타임은 약 40분으로 오는 5월 광주와 서울, 미국에서 동시에 개봉한다.

연민지, 김잔디, 홍지연, 박형일, 박영배, 박준철, 강다희, 남대협, 강지훈 등 40여명의 배우가 출연하며, 가수 송기인

의 스승으로 알려진 강송대 명장(전남도 무형문화재 제34호 남도잡가 예능보유자)이 특별출연했다.

영화는 80년 5월, 광주에서 열리는 뮤지컬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여대생 '미숙'이 겪은 광주항쟁의 경험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오디션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미숙'은 계엄군과 마주쳐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다가 계엄군이 된 대학생 '중호'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광주에서 벌어진 상황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광주를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호'와 '미숙'을 통해 80년 5월의 아픔을 전한다. /전재제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